



5면

전주정원산업 박람회 화려한 막 올라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음 3월 25일)

제3497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일 원광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을 주제로 김관영 도지사 민생투어가 진행됐다.

## 김 지사 민생투어 첫 행선지 '익산'

### 도내 14개 시군 방문 추진... 익산서 바이오 특화산업 등 현안에 머리 맞대 시민 600여명과 소통... 자활공동작업장·매일시장 등 찾아 민생의견 청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심을 듣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민생투어에 나섰다.

이번 행보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도정의 답을 찾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게 된 것.

김관영 도지사는 2일 첫 행선지로 익산을 찾았다.

이날 익산을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는 2차 지방 이진 공공기관 유치와 바이오 특화산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첫 일정으로 의례적인 업무보고 대신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솔직한 의견을 귀담아 듣는데 집중했다.

우선 익산시의회에서 의정단과 간담회를 가졌고, 기자실을 방문해 지역의 분위기와 주요 소식을 경청했다.

이어 원광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익산시민 600여 명을 만났다.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

음'을 주제로 김 지사가 직접 익산시민 앞에서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민심을 폭넓게 청취하는 시간이 됐다.

김 지사는 시민 앞에서 민생 중심 도정 철학을 직접 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익산시와의 특별한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이었던 '2차 지방 이진 공공기관 유치' 계획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 지사는 관련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익산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익산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질의에 답하며 전북자치도와 익산시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 모두 도전정신을 기르고 역량을 한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뤄지는 첫 시군 방문의 출발지를 고민 끝에 익산으로 정했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 민생 최전선 현장에 대한 방문도 이뤄졌다.

김 지사는 도내 최초 자활공동작업장인 '익산이로움'을 찾아 이곳 근로

자들과 함께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두부와 보쌈용 무김치 공정에 참여했다. 김 지사는 믿음직한 고품질 자활생산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등 매출 증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시장과 매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환에 적극 공감했다. 김 지사는 중앙시장에 자리 잡은 청년몰 상상노리터에서 식사를 하며 어려운 여건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회단체장들을 격려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익산시는 근로자와 농민, 기업, 주민, 정치권의 합의로 익산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민생경제 선도지역"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익산형 일자리 사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첫 방문지로 익산에 오신 김관영 지사께 시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올해 익산시 사자성어인 '동심공제(同心共濟)'의 마음으로 익산시가 전북자치도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쳐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춘 기자

### 전북자치도,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 공모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5억7,000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1월에 공모한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은 일반국민 또는 관련 종사자 등 수요자 중심의 아이디어 기반으로 재난안전 불안요소를 해결하는 국민 체감형 기술개발사업이다.

공모 선정된 연구개발 과제는 차량 및 보행자 상호사고예방을 위한 지능형 보행자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이다. 대형차량 주변의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를 감지해 교차로 및 이면도로에서 발생 가능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협약을 통해 공동 대응했다.

2024년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운전자가 대형차량 사각지대를 포함한 주변 전방위(360도)의 보행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주·야간 보행자 감지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또한, 보행자 감지정보 및 안전정보를 분석하고 표출하는 장치를 개발해 차량에 장착하는 실증을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한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오늘 개최

### 17일까지 의정 돌입... 제1회 추경예산 등 안건 처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는 3일부터 17일까지 제409회 임시회를 열고 15일동안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동의안 등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먼저, 3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및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한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

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청(약 5,138억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약 2,267억원)의 총 7,40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폐회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회기는 올 들어 처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합리적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 5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 전북자치도, 대규모 행사장 민관 합동 안전점검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점검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 대규모 행사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3일 개막하는 부안 마실축제 현장을 찾아 인과관리 및 안전 관련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이를 위해 시·군을 비롯해 경찰·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건축사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행사 현장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 △질서유지 및 인과 관리 대책 △임시시설물, 전기, 가스, 화재, 교통 등 분야별 안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도는 현장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군 및 축제 주최 측에 전

달해 개막 전에 시정 조치토록 지도하고, 안전 위태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의 지역축제도 시·군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축제장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안전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점검 이후 △익산 서동축제 △남원 춘향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에 대해서도 주관 민·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나들이객이 지역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어린이날 연휴 관계로 5월 6일까지 신문 쉽니다.

##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녹두꽃, 모두 다 꽃이야

## 제57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모두의 하늘을 열다

**일시** 5월 11일(토) 11:00~12:00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기간** 5월 11일(토)~12일(일)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축하공연 | 5월 11일(토) 18:00**



이찬원



박서진



안치완



더카리스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음시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